

진리형(프로그램) 장학금

■ 프로그램명:

대운하시대(15-18세기)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

1. 프로그램 목적

가.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표

2020년 11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는 시점, 한국의 관심은 새로운 미국 질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보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단순히 세계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의 패권 경쟁 구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육지와 바다 모두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가 수천 년, 적어도 수백 년 이상 반복해왔던 '천하(天下)' 형세에 대한 '오래된' 습관적 반응이자 모색이다.

G2로 성장한 중국은 해양 대국 미국과 대응하기 위해 21세기에 '새롭게' 해양 굴기(屈起)를 외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의 세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라는 거대한 새 판이다. 이때 '일로(一路)'라는 해상 실크로드를 설정한 것은 누가 봐도 포스트 아메리카(post America)를 염두에 둔 야심 찬 포석이었다. 그리고 이 포석을 단단히 하기 위해 현재 중국 정부는 정확히 대표되는 '해양 대국 중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 대국' 중국은 역사에 조금만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문제를 제기할 만한 논쟁적 개념이다. 과거 역사 교육에 있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언급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해양 대국'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현재적이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항배가 해양 세계에서의 경쟁에서 판가름 날 국면이기에, 과거 서구의 '대항해시대'(15-18세기)에 중국의 해양 진출이 어떠했는지를 역사적이면서 상호 비교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 작업은 단순히 역사적인 탐구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미·중 해양 패권 경쟁의 역사적 연원을 찾는 동시에 이러한 미·중 갈등의 구조를 연속성과 시대적 변화상에 맞추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15-18세기는 역사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패권이 역전되었던 결정적 시기였다. 오랫동안 문명의 우위를 점해오던 중국과 인도 등의 동양 문명은 이 시기 해양 대국으로 성장했던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 문명에 역전당하기 시작하여 20세기가 되면 해양 세계의 대표자인 미국 주도의 질서 아래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의 경찰국가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나라로 21세기에 접어들어 중국이 부상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부상(혹은 굴기)은 21세기의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전근대 중화제국의 역량이 새롭게 부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15-18세기 중국의 해양 역량을 동시기 서구의 대항해시대와 비교하기 위해, 최근 중국사의 유력한 시대 개념으로 떠오른 ‘대운하시대(1415-1784)’를 연구하고, 이를 역사대중화 현상에 맞추어 상호 소통적인 온라인 강좌로 개발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와 교육을 기반으로 중국 대운하로의 현장 답사까지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은 ‘연구’, ‘교육’, ‘활동’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형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연구 영역 : 기존에 중국사에 있어 명나라(1368-1644)와 청나라(1644-1911) 시대를 통합한 시대 개념으로 ‘명·청 시대’, ‘후기 중화제국(late Imperial China)’, ‘근세(近世)’, ‘초기근대(early modern)’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최근에 그 시기를 ‘대운하시대(1415-1784)’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파악하고자 하는 흐름이 대두되었다. 이는 당시 서구의 ‘대항해시대’라는 시대개념을 염두에 둔 특징을 잡아낸 것으로, 특별히 “왜 중국은 해양으로의 진출을 주저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먼저 중국의 ‘대운하시대’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고, 이러한 시대성이 인접한 한국과 일본 및 더 나아가 동시대 서구를 이해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비교 관점에서 탐구한다. 학기 중의 세미나를 통해 대운하시대의 기본적인 개념과 운영 방식, 중국의 해양 정책, 동시대 동아시아 및 서구와의 비교 등을 연구한다.

둘째, 교육 영역 : 본 프로그램의 최대 특징으로 “대운하시대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라는 주제로 12강의 온라인 강의를 개발하고 촬영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한국사회의 온라인 교양 플랫폼으로 영향력이 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세바시 대학>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를 개발하여 탑재시킨다. 이미 <세바시 대학>에의 강의 탑재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예비 역사교사들은 프로그램 책임자인 조영현 교수와 함께 30분 분량 12강 분량의 <대운하시대 중국은 왜 해양 진출을 주저했는가?>라는 세바시 온라인 강의를 기획하고, 강의안 개발에 참여하며, 때로는 촬영 및 인터뷰까지 참여할 수 있다.

셋째, 활동 영역 : 본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연구와 교육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현장 답사라는 활동으로 마무리된다. 중국의 대운하 현장 답사를 통해 대운하의 지리적 맥락과 해양 활동과의 연계성을 탐색한다. 본래 대운하의 대표적인 도시인 항주, 양주, 천진, 북

경을 비롯하여 해양 교류와 관련된 도시인 광주, 마카오, 영파까지 현장을 답사하면서, 왜 15~18세기 중국은 해양 진출보다 대운하 유지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상의 조건이 될 것이다. 다만 작년부터 시작된 COVID-19 사태로 인해 중국 현지 답사가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중국의 대운하와 비교할 수 있는 한국의 운하 세 곳을 탐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중국의 해양 굴기와 한국의 운하가 과거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이용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파악하는 토론 시간을 제공한다.

나. 프로그램의 타당성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는 한국의 역사교육을 책임질 예비 역사교사를 양성한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기의 역사교육을 끝으로 역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역사교사는 학문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역사교육과가 양성해야 할 미래인재는 학문적 탐구 역량과 이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역량이 필수적이다.

특히, ‘뉴노멀(New Normal)’, ‘언택트(Untact)’ 등의 키워드로 대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환경에서는 비대면 강의, 온라인 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 창의적이면서도 발 빠른 준비가 현 예비교사에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프로그램은 예비역사교사가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역사적 소재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를 온라인 역사 수업으로 만들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 현장 체험까지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세바시대학>이라는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사와 연계하여, 앞서 언급한 역사학 내용을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12회 차에 해당하는 온라인 강연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이미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는 ‘나로 시작해 우리로 열리는 이야기’라는 모토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적용한 실무 지식부터, 풍성한 교양을 채워주는 인문학까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세바시대학>은 최적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예비교사로서 긴 호흡의 온라인 역사 수업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콘텐츠 제작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수업 콘텐츠 내용에 있어서는, 교수자의 적극적인 지도 아래, 보다 심도있고 정확한 역사 지식을 섭렵할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특히 본 프로그램에서는 주기적인 역사 세미나를 구성하고, 관련 전공 대학원 석사 박사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비교사들과 함께 현재 출간된 대중서나 기존 개론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못한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의 흐름을 함께 공부할 예정이다. 역사교육에 있어서, 내용 지식에 대한 풍부한 이해는 좋은 수업을 만드는데 선행되어야만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내용 지식을 밀도 있게 공부할 기회를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려는 것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연구와 교육 뿐 아니라 현장 체험 활동을 추구한다. 역사학 분야에서 학문 탐구는 문헌 연구도 있지만, 현장 답사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학생이 구체적인 주제, 가령 대운하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관광 상품으로서는 아직 주목받지 못한 지역으로 현장 답사를 나서기 힘들다. 게다가 COVID-19 로 인하여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탐방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에 중국 운하와 비교가 가능한 한국의 세 운하(굴포운하, 경인운하, 포항운하)를 탐방하고자 한다. 이 세 곳은 조선시대의 운하와 현대의 운하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중국의 운하와 비교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상의 프로그램은 결코 교수자 또는 학생 개인이 혼자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수, 학생, 대학원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상호 소통과 보완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역사교육에서 내용과 방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려는 본 프로그램의 야심찬 기획이 예비 역사교사에게는 상당히 유의미한 도전이자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역사교육과 미래인재의 학문적 탐구 역량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양성하기 위해서 진리장학금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팀 프로젝트의 성격을 지닌다.

2. 프로그램 개요

가. 내용

1) 대운하와 대운하시대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15~18세기 중국과 바다의 관계를 재해석한다.

- * 중국 역사 속의 대운하에 대한 스터디
- * 대운하시대라는 시대 개념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과 적합한지에 대한 토론

2) 재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혹은 일반 대중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세바시대학>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 * 30분짜리 12강 분량의 온라인 강의를 설계.
- * 12강 강의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
- * 12강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
- * <세바시대학>에 교육 콘텐츠의 등재를 통한 일반 대중과의 소통 창구 마련.

3) 대운하 및 해양 교류와 관련된 한국의 운하 답사를 중국과 한국의 운하 이용 방식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층적으로 이해한다.

- * 굴포운하, 경인운하, 포항운하 및 해당 도시와 물류에 대한 사전 학습
- * 세 지역에 대한 현지 운하 답사
- * 답사 이후 보고서 제출 및 평가회

나. 운영기간

- 1) 연구 : 2021년 3월 ~ 12월
- 2) 교육 : 2021년 4월 ~ 6월
- 3) 활동 : 2021년 5월 ~ 12월 사이

다. 대상/정원

- * 대상 :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와 문과대학 사학과 학부 재학생 (2021년 1학기 현재)
- * 정원 : 12명

라. 학생 선발방법

- 1) 4월 16일 두 개 학과의 학부 재학생들에게 프로젝트 모집 공지
 - 2) 4월 23일까지 신청자 접수 (이메일로 장준 조교에게 접수/
 - 3) 5월 4일 이전에 면접 진행 및 선발
- * 선발 기준 : 1) 대운하에 대한 역사 지식,
2) 기존에 중국사 관련 수업 수강 여부,
3) 중국어와 영어 등의 외국어 활용 능력,
4) 팀 프로젝트 장학금임을 인지하고, 사전 세미나와 사후 세미나까지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등.
 - * 선발 방법 : 1) 1차 서류심사, 2차 1대1 ZOOM면접 진행
2) 1차 제출 서류 양식은 **#붙임파일** 참조

3) 2차 1대1 면접은 실시간 ZOOM 면접으로 진행(ZOOM 링크와 면접 방식은 추후 조교를 통해 공지)

4) 최종 합/불 여부는 합격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당사자에게 개별연락으로 전달

- 추가 문의사항 장준 조교에게 메일을 통해 문의 (mailman2@korea.ac.kr)

마. 선발된 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의무

1) 혜택: 팀 프로젝트 장학금 1인당 100만원 (운영방식은 선발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함)

2) 의무: ① 세바시 대학 강의 제작에 참여

② 한국의 3곳 운하 가운데 1곳 이상에 대한 답사와 보고서

③ 사전 및 사후 세미나 참여(zoom을 기본으로 진행)

3. 세부 프로그램

단계/ 회차	기간/일시	주 제	내 용
1단계 연구 / 총 10회	2021년 3월 ~ 12월	대운하시대, 중국 은 왜 해양 진출 을 주저했는가?	대운하시대에 대한 기본 개념 강의 중국의 해양 진출 역사 학생들의 발제 및 토론
2단계 교육 / 4-6월	2021년 4월 ~ 6 월	온라인 교육 컨텐 츠 개발	상기 연구 내용에 대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 개발 <세바시대학> 12강좌 커리큘럼 공동 개발
3단계 활동 / 3회	2022년 5월 ~ 12월 사이	현장 답사	운하 도시 3곳 * 골포운하 * 경인운하 * 포항운하

4. 프로그램 효과 평가 계획

본 프로그램에서 목표로 하는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 1)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사후 검사 실시 : 15~18세기 중국과 바다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대운하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 연구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역량 증진도 등을 포함하여 사전-사후 설문지 검사 실시
- 2) 참여 학생들이 제출한 최종 과제물에 대한 평가 : 참여 학생 및 참관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발표를 진행하며, Pass/Fail로 평가
- 3) 온라인 강의 콘텐츠에 대한 설문 조사 : <세바시대학>에 올린 강의 콘텐츠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사전/사후 만족도 설문 조사